



National Network of Korean-American United Methodist women  
**NNKUMW** 한인여선교회전국연합회  
 Newsletter September, 2016

Photo: 뉴욕연합회 Mission U

- 1. 뉴욕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학교    2. 뉴욕과 델라웨어볼티모어 연회 선교학교 인도자 후기
  - 3. 델라웨어볼티모어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학교    4. 북일리노이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학교
  - 5. 서부지도자 훈련: 남가주 연합회 참가자 후기    6. 서부지도자 훈련: 북가주 연합회 참가자 후기
  - 7. 상식코너    8. 함께하면 쉽습니다: \$1,000 모금운동
- <http://www.nnkumw.org>

**뉴욕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학교**

**2016 뉴욕 연합회 선교학교에 다녀와서...**



뉴욕연회 한인 여선교회 연합회에서는 지난 8월 18~20일까지 뉴욕 업스테이트에 위치한 Honor's Haven Resort 에서 선교 학교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른 48명과 아이들 6명이 모인 이번 선교학교는 영성 공부에 뉴욕한인교회 이용보 목사님과 사회공부에 후러싱제일교회 김성태 권사님, 또 아동반에 미드허드슨 한인연합감리교회 권오연 전도사님이 수고해 주셨고 모두 함께 2박 3일동안 새로운 시각과 마음으로 많은 것을 공부한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등록을 마치고 사귀의 시간과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이어진 영성 공부의 주제는 성경과 인간의 성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 이란 주제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성별의 아름다움과 복합성을 이해하도록 서로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서로 토론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성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 받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불림 받은 우리의 일부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성을 선물인 동시에 책임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였고, 우리의 성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경고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기독교는 환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영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긍정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한 것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그것들을 모두 받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절대 진리인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 제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공부 시간에는 기후정의란 무엇이며 왜 그것이 종교적인 문제인가에 대한 공부와 토론을 통해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관리하게 되어있으며 선한 청지기가 되라 하시고 특히 우리 여성들이 에너지 보존에 관한 일에 앞장서야 함을 강조하시고

줄여야 할 것, 재활용할 것, 다시 사용할 것 등에 공부하며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학교에서 영성 공부와 사회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음과 뜻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귀한 말씀과 많은 배움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선교학교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신 권오연 전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막내는 선교학교에서 배운 것을 매일 얘기하고 다음에도 또 가고 싶다고 한답니다. 하하하!  
(글: 이수정 집사, 스탠포드아일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



## > English



### NY MISSION SCHOOL 2016

The NY Mission School 2016 was held on August 18th to 20th at Honor's Haven Resort in upstate New York. It was sponsored by the NYC KUMW Network. The Mission School provided a Spiritual Growth Study with Rev. Yong Bo Lee as a study leader; a Social Issue Study with Lay Leader Sung Tae Kim as a study leader. There was also a children's class led by JDS, Ohyeun Lee. We as a group of 48 adults and 6 children had a blessed

time together. The studies gave new perspectives and challenges in some areas.

After registration, we started the Mission School with a worship service, followed by a "get to know each other" time, and participation in two mission studies. The first mission study was a spiritual study entitled "The Bible and Human Sexuality: Claiming God's Good Gift." We divided ourselves into groups to explore the complexity of the biblical text and our varied understanding of it in light of human sexuality. Later, each group shared summaries of their separate discussions.

The participants concluded that human sexuality is a part of who we are, and recognized it as a gift of God. At the same time, we realized that we are responsible for the God's gift, and we also discussed God's warning against those who abuse the gift.

As a Christian community, we are to be welcoming to others who are different from us, and at the same time we are a community that is not obliged to agree with anything that society is imposing on us. God's law comes first. We are living in a rapid changing world, which pushes us to accept everything without the time to think carefully about our values. As followers of Christ our values are first of all, biblical; and it is our challenge to live out our beliefs in a world that constantly challenges us. This is related to how we are brought up and instructed in the Christian faith, as to how we implement our beliefs to transform the world.

The Issue Study was entitled, "Climate Justice: Call to Hope and Action." This study deepened our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 on God's creation, as well as our

responsibility to take care of God's creation as good stewards. As our study leader emphasized one of the every-day ways that we as women can advocate for climate justice is by reducing, reusing and recycling.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Spiritual and Issue studies at the Mission School, I was reminded of the biblical commandment to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I thank God for giving an opportunity to learn, to experience, and to receive many blessings through the Mission School. I also thank the NYC KUMW Network officers who made it possible for us; and I thank the study leader for children, Ohyeun Lee, who introduced the opportunity to freely explore the natural world and get to know how to care about it in her talk on "Climate Justice." My youngest child enjoyed the Mission School so much that he talks about it almost every day and wants to attend again next year.

(Witten: **Soo Jung Lee**, KUMC of Staten Island New York)



## 뉴욕과 델라웨어볼티모어 연회 선교학교 인도자 후기

### 성장과 성숙의 기쁨을 주는 한인 여성교회 선교학교

지난 7 월에 델라웨어-볼티모어 연회의 한인여성교회 선교학교와 8 월은 뉴욕연회 한인여성교회 선교학교에서 "성경과 인간의 성별"에 대해서 가르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여러 해 동안 미국 여선교회 선교학교와 한인 여선교회 선교학교 강사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는 나에게 영적으로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선교학교 강사학교에 가서 먼저 배워야 하고, 배운 것을 전달하고 나누기 위해서는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훈련을 통해서 목회 적으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개체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시간을 따로 내어서 배우고 준비하는 것은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의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가 배우고 나눔으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낀다.

특별히 이번에는 현재 미국 사회와 우리 교단에 심각한 이슈가 되는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며칠 동안 함께 배우고 함께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면서 동시에 문화적인 이슈에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누면서 '환영하지만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자고 결단을 했다.

바라기는 매년 열리는 여선교회 선교학교를 통해서 더 많은 한인연합감리교회의 개체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이 참여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개체교회를 잘 섬기는 성숙한 여선교회 회원들이 되길 소망한다. (글: 이용보 목사, 뉴욕한인교회)

### > English

#### **The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Mission School that Gives Joy of Growth and Maturity**

I had an opportunity to facilitate and teach "The Bible and the Human Sexuality," for the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of Delaware and Baltimore, at the July School of Christian Mission and New York annual conference in August.

Personally, for many years, I had several chances to teach the United Methodist Women and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at the School of Mission, an opportunity which has broadened my outlook and knowledge. In order to lead the class, I had to go to the School of Mission for Learning. Also, in order to share what I learned, I had to apply what I learned to th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tself. This experience as well as, has helped me to grow



spiritually.

As a pastor who serves a local church, I have a difficult time to set aside the time for the School of Mission. Nevertheless, when I see the Korean UMW grow, I feel a great joy.

Especially at this time, the focused on and held discussions on the topic of homosexuality. We learned about human sexuality through biblical, traditional, and cultural lenses, and each had a chance to make a presentation by groups and as individual. We made an agreed decision about the diversity of human sexuality in connection to the church: "Welcoming, but not Agreeing."

I pray that more local KUMWs participate in the School of Mission and learn more. I also hope that many KUMW members will faithfully serve their local churches to grow more empowered, spiritually, every year.

(Written: **Rev. Yongbo Lee**, NY Korean Methodist Church& Institute)



### 델라웨어 볼티모어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학교



#### 델라웨어-볼티모어 연합회 선교학교에 참여하고

8 월 첫 토요일, 델라웨어-볼티모어 연합회 선교학교가 있었다.

선교학교는 늘 새로운 배움과 즐거운 만남이 있어 늘 기대되는 프로그램인데, 이번에도 역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충전되어 올 수 있었다.

이번 강의는 성 정체성과 기후 정의 2 과목이었다.

첫째 시간이었던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최근 우리가 일상 생활 중에서 가장 크게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게 되는 그러나 막연히 걱정하고만 있던 문제였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깊이 생각하고, 배우고, 나누는 시간이 되어서 나름대로 내 안에 생각이 정리되어 감사했다. 특히, 성경 구절을 찾아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분명히 알게 되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쓰던 것처럼,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예들을 함께 찾고 나누는 시간이 가장 좋았다.

그 시간 덕분에 막연하던 생각이 구체화 되고 이젠 다른 사람에게도 잘 알려줄 수 있겠다 확신이 생겼다.

선교학교에서는 우리 그룹 모임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내 생각을 정리하고 새롭게 하기도 할 뿐 아니라, 우리 모임 안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생각들을 다른 모임의 발표를 통해 배우는 시간이 있어 나 자신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 기회가 되어 정말 즐겁다. 역시 배움은 끝이 없는가 보다.



둘째 시간은 기후 정의였는데, 이 내용은 그 동안의 선교학교나 지도자 세미나를 통해 여러 번 다루었었다. 배울때마다 환경을 위해 또 우리 아이들이 계속 사용해야 할 세상을 위해 작은 실천이라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어쩐지 다시 흐지부지 내가 편한 대로 다시 살며 결심을 이루며 살지 못하는 내 생활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지구, 환경, 우리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사용해야 할 세상.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 절약을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정말 감사하다.

선교학교라는 기회를 통해 새롭게 배우고, 다시 한번 상기하고, 성장하는 일도 즐겁지만 연합회를 통해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는 일 또한 정말 행복하다. 만남이 있을 때마다 오랜 이별 후에 만나는 가족들처럼 늘 반갑게 맞아주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챙겨주고 살피주는 회원들로 인해 만나러 가는 그 길마저도 즐거웠고 그래서 또 다음 만남이 기대된다.

(글: 정해원 사모, 볼티모어 에덴 한인연합감리교회)

## > English

### Delaware-Baltimore Conference Mission u

On the first Saturday of August, the Delaware-Baltimore UMW held Mission u.

Mission u is a program that I always look forward to because it comes with the promise of learning new things and meeting fun people. As expected, I had a fun and fulfilling time this year as well, and I was recharged in my body, mind, and soul. This year's seminar had two topics: sexual identity and global climate justice.

The first topic of sexual identity was an issue that we had been widely discussing in our daily lives and endlessly worrying about. I was thankful for this opportunity to deeply think, learn, and share about this topic, and I was able to organize my thoughts about it. In particular, my favorite part was when we



looked up Bible verses that specifically indicate how God wants us to live, and we talked about examples of when people misuse Bible passages just as Satan used words from the Bible to tempt Jesus. Because of this, my vague thoughts became solidified and I became confident that I could teach what I had learned here to other people. At Mission u, not only did we share our own thoughts with others in our group in order to organize and

renew our own beliefs, but through the presentations of other groups we also heard of new ideas that

our own group had never thought of, which was fun because it gave me an opportunity to be more fulfilled. It's true what they say, that there is no end to learning.

Our second topic was global climate justice, something that has been discussed previously many times at Mission u or other leaders' seminars. Every time I learn about it, I work really hard to take small steps to preserve the environment on this earth in which our children must continue to live. But as time passes, I somehow gradually fade back to living in a way that is convenient for me and end up not being able to live out the resolutions that I made to myself. This was a valuable opportunity for me where I could reevaluate the way I've lived my life thus far in relation to the earth, the environment, and the world that our children will inherit. No matter how many times these things are stressed to us, it is never too much. With that in mind, I began again to pay attention to the little ways in which I can save energy. I'm so thankful.

Through the opportunity that is Mission u, I love learning new things, being reminded of what I've learned in the past, and finding growth; but I also really love meeting good people through the UMW. Every time we meet, the other members always greet us like reunited family members and always give us their best. They make the trip fun and memorable and make me look forward to the next time we meet.

(Written: **Haiwon Jung**, Baltimore Eden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 북일리노이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학교

### 북일리노이 선교학교 참석 소감문

선교학교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다니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교회 담을 넘어서 선교학교에 가도록 인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최되는 장소를 찾아가지 못하는 나를 제일 연합감리교회 교우님들이 합승하도록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출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쉽게 가까워 질 수가 있었습니다.



도착해서 리셉션 데스크에서부터 친절한 안내를 받고 식당에서 서로를 더 가까이 알아가면서 아침 식사를 끝내고 예배를 드리러 예배실로 갈 때에는 준비된 마음으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 세미나 시간에는 각반으로 나누어져서 기후에 대한 정의와 지구온난화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며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도자 김정자 권사님께서 준비된 강의 실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세상에 문제점 (기후 온난화)을 이해하고 책임을 지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지구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며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선교학교에 참여함으로 저는 생각과 마음이 커졌고 눈이 떠졌습니다. 할 수 있는 작은 일, 재활용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지구를 건강하도록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는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인도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선교학교와 함께 전진하겠습니다.

(글: **황정숙 권사**, 북일리노이연합회)

## > English



It was truly a privilege for me to attend the Mission u at the annual conference. Attending this conference was a new experience for me to step outside my church walls and hear the issues going on in the world. At first, I did not know how to get to the meeting location, however thankfully, received a ride from a neighboring church van. Through this ride, I was able to mingle with other believers in Christ.

Once we arrived, we were greeted by smiling faces at the registration table and received instructions and materials. Then we headed to the cafeteria to eat breakfast, where we continued to get to know others and hold fellowship. Before heading into worship, my heart was opening with a joyful readiness to receive more of God.

During the seminar, we went into our respective classrooms to discuss issues related to Climate Justice and Global Warming. The speaker JJ Kim spoke in Korean and communicated clearly about our personal responsibility as Christians to take ownership of the world around us. Although these are ongoing, world problems, she mentioned the important relationship between God, people, and the earth in our daily lives.

Through this conference, I learned to think with a larger perspective. I was convicted to apply these lessons by taking action, knowing even small changes can help us to be good stewards of this earth. It was a valuable and worthwhile experience and opened my eyes to the world around me. I am genuinely thankful to for the guidance and partnership with others moving forward.

(Written: **Jung Sook Hwang**, Northern Illinois Conference KUMW Network)



서부지도자 훈련: 남가주 연합회 참가자 후기



## 서부지도자 훈련세미나를 마치고

지난 8월 12~13일까지 1박 2일 동안 전국여성교연합회 주관으로 월서교회에서 남가주, 북가주와 콜로라도의 임원들 약 45명이 함께 모여 서부지도자 훈련세미나를 통해 반가운 만남의 시간과 여성교회에 대해 알아보며 은혜를 듬뿍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 날에는 각 지역에서 온 임원들과 서로를 아는 시간을 가졌으며 여성교회 조직과 전국연합회 사역, 여성교회 목적문 성경공부, 여성교회 역사, 여성교회 자료 활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에는 Action Plan: Open space technology, 회의법, Public Speaking, 미래에 대한 비전 나누기 등에 대해 배우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그동안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연합회'가 그저 교회 일부이며 교회를 돕는 작은 조직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1박 2일이라는 짧은 시간의 세미나를 통하여 여성교회 연합회에 대해 아주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으며 매 시간시간마다 강사분들의 말씀에 감동하고 가슴 찡함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여성교회 역사 시간'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여성교사로 헌신 하셨던 메리 스크랜턴 여성교사와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 온 많은 여성교사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음을 다시금 깨달으며 그분들의 사랑에 감사와 마음의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성교사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여성교회가 더 열정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지도자를 양성하여 함께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현재 그 일을 위해 열심을 내는 전국연합회와 10개의 연합회가 있음에 큰 박수를 보내며 그 속에 아주 작게나마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되니 참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지상명령(마태복음 28:19-20)의 사명이 나에게도 분명 있음에 이번 집회를 통하여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동안 난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고집해 오지 않았나 반성을 하며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뜨거운 복음에 대해 열정을 가슴에 담게 되었으며 장래의 밝은

역사는 앞으로 우리 여성교 연합회의 끝없는 훈련을 통하여 계속 성장할 것이며 미래에 우리 여성교 연합회가 더욱 밝은 빛으로 세상의 등불이 될 것을 소망해 보는 계기가 되었음에 이런 세미나를 하게 하여 주신 모든 전국연합회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글: 박현숙 집사, 남가주연합회 사회부장)

## The Western Regional Leadership Seminar

I attended Western Regional Leadership Seminar for 2 days from August 12th through 13th, which was sponsored by the NUMW from Wilshire UMC in Los Angeles. Approximately 45 members from Northern California, Southern California and Colorado attended the seminar. The seminar was full of God's grace, which we felt while meeting each other and learning about women's mission.



On the first day, we spent time with all of members to get to know each other. In addition we had an opportunity to learn about UMW organization, the mission of UMW, the NNKUMW Mission statement, and how to utilize the UMW's resources.

On the second day, we learned and shared our thoughts about "Action Plan: Open Space Technology, Facilitating meetings, Public Speaking, and Sharing Our Future Visions." Through this seminar, I learned that the UMW is not just a small group of women serving their own churches. During this very short seminar, I gained new insights about the UMW. I experienced an unforgettable sensation of enlightenment when the guest speakers spoke about each topics.

Especially during the History of UMW's session, I was amazed by many the women in mission carrying Mary Scranton's passion and sacrifice of missionary work started in Korea. Needless to say, I am thankful again for their love and passion in mission.

When I attended a session of Women's Mission History, I thought about UMW being an advocate in developing and cultivating new leaders who will influence the world by spreading God's messages. I praise and thank the NNKUMW for allowing me to be a part of this wonderful organization.

Through this seminar, I confirmed that Jesus ordered me to carry on his mission/calling as Matthew 28:19-20 states. It is an embarrassing testimony that I was a Christian seeking my own comfort all the time. At the end of this seminar, I had re-gained my passion about not only women in mission but myself as a



tool for God. I have no doubt that the UMW 's future is bright and will continuously grow through endless trainings and developmental programs. I thank all of the NNKUMW committee members for providing this valuable seminar which left me with the highest hopes and dreams of our UMW in the future of this world.

(Written: **Hyun Sook Park**, Social Action Officer in Cal-Pacific Conference KUMW Network)



## 서부지도자 훈련: 북가주 연합회 참가자 후기



### 서부 지역 여성교회 지도자 훈련을 마치고.

서부 지역 여성교회 지도자 훈련이 8월 12-13일 1박 2일로 남가주에 있는 Wilshire 한인 연합 감리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강박 관념과 미뤄둔 일들로 분주한 마음, 이런 복잡한 심경으로 지도자 훈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Wilshire 연합 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의 따뜻한 환대와 맛있는 점심 대접을 받고, 최미란 사모님의 인도로 찬양과 울동으로 조금씩 친해지며, 이러한 강박 관념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런

걱정을 마음의 걱정으로만 여기게 하시고, 모든 환경을 잘 조성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 서부 지도자 훈련은 "평화와 여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공부하게 되었고, 특히 지도자로서 꼭 훈련이 필요한 분야인 public speaking 과 회의법은 많은 여성교회 회원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열띤 토론의 시간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성교회의 조직과 역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인 여성교회 사역들에 관하여도 공부를 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여성교사 메리 스크랜턴의 선교 사역이 1884년 미국 오하이오주 리벤나 연회에 속한 여성교회 회원 볼드윈의 헌금 \$88로 시작되었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화학당이 시작되었고, 남 감리회에서도 1897년 조셉핀 캠벨 선교사를 파송하여 배화학당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여성교사들의 사역으로 많은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한 학교와 교회를 세우게 되었으며, 그중 전도 부인 사역은 한국교회의 초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신앙이 선교사들의 땀과 기도, 순교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비교 할 수 없는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평하며, 핑계와 나태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부끄러운 나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심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한인 여성교회 전국연합회 총무로 사역하시는 김명래 총무님의 1부와 2부로 진행된 "나의 삶을 재조명해 보자"라는 주제로 한 여성교회 목적문 성경 공부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나의 삶의 가치관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의 관계를 돌아보고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성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힘 있고 간결하면서도 열정적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 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동참하며, 열정이 식지 않고



꾸준히 섬김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40 여 명의 서부 지역 한인 연합 여성교회 회원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교제하며 섬기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주방에서 땀을 흘려가며 섬겨주신 Wilshire 연합 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과 교우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시편 107:1).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글: 박연옥 집사, 열린교회, 북가주연합회)

## > English



### **The completion of the West Coast Women's Mission Leadership Training...**

From August 12 to 13, for two days and one night, the West Coast Women's Mission Leadership Training took place at the Wilshir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Los Angeles, California. With the impending pressure and incredibly short amount of time to prepare, I carried with me a burden of knowing that I had yet to accomplish so many tasks

back home. With this complicated feelings, I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sessions.

Through the warm and friendly welcomes of the Wilshire UMC members, as well as the delicious lunch provided by the church and the session and worship led by Choi Mi Ran Samonim, the complicated feelings I carried in my heart began to untangle and I opened up to the experience. By the means of God's grace moving in the midst of the congregation, I left the pressures and the burdens that I had felt at the beginning of the trip in the hands of God.

This year's West Coast Women's Mission Leadership Training's theme was "Peace and Femininity." In particular, there was an emphasis on public speaking and leadership, with many members expressing deep interest in the discussion and conversation, allowing for a blessed time for all.

We studied the structure, history, and the current efforts of the Women's Mission team. The history of the organization finds its roots in Mary Scranton of the American city of Ravenna, Ohio, who was the first female missionary to Korea in 1884. She received \$88.00 of support from the church of Baldwin to aid her in her missionary process. Scranton founded the Lee Hwa Women's University. In 1897, Josephine Campbell was also sent to Korea and she founded Bae Hwa Girls' High School. Through the efforts of these two women, many more institutions of raising female leadership were established, including churches and schools. From these institutions, an evangelical program directed specifically at women was also established, setting the foundation of many Korean churches. The current state of female spiritual

faith is a result of the relentless effort, blood, sweat, and tears of the female missionaries who came before us, paving the path for us today. In remembering this, we must be mindful of the struggles and the tribulations of these women and repent before God for the complaints and protests we express, despite how easy we have it in comparison to the women who came before us.

The woman who deals with the general affairs of the Korean Women's Missions Organization, named Pastor Kim Myung Rae, led bible studies, split into first session and second session. The theme was "My Life Revisited," and I was deeply blessed through these sessions. I was able to reconsider the purpose and values of my life, realizing that God desires to work through and receive glory from women.

Pastor Kim was a powerful and concise speaker, expressing God's love passionately. Through her words, I was able to understand and recogniz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Similarly, her words stirred desire in me to participate in the world mission, taking part in the spread of God's word. In response, I prayed for the ability to participate and for a never-ending passion for this mission.

I was able to experience the truth that God is truly with me. All of the 40 people who were present at the conference were able to worship, experience God, and hold fellowship alongside fellow believers.

I want to express thanks and gratitude toward the women who worked tirelessly in the hot kitchen, despite the heat of the summer.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Psalm 107:1)

Thank you Lord for the time you have given to me to re-experience your love and grace. Praise God forever.

(Written: **Yeon Ok Park**, Open Door Church, Cal-Nevada Conference)



## 상식 코너



### 맛있는 가을음식 만들기

별써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공기가 가을을 느끼게 하는 날씨입니다. 울여름 무척이나 덥고 가물었던 것 같습니다. 더위로 지쳐서 자칫 입맛을 잃었나요? 아주 상큼하고 쫄깃쫄깃한 골뱅이 무침입니다. 골뱅이 두 캔이면 근사한 접시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일 먼저 골뱅이 통조림 2 통을 준비하여 국물은 버리고 차가운 냉수로 샤워시켜 주세요. 그리고 식초를 잘박하게 부어 숙성시켜줍니다. (매우 중요함— 싱싱하고 쫄깃쫄깃해져요) 1 시간 정도 다시 한 번 찬물로 샤워하여 건져서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골뱅이 양념소스 만들기: 고추장 2 큰술, 고추가루 2 큰술, 식초 10 큰술, 매실청 1 큰술, 물엿 1 큰술, 설탕 2 큰술, 마늘 간 것 2 작은술, 생강즙 2 작은술.

야채준비: 적 양배추 ½ 통, 적 양파 1 개, 붉은 고추 3 개, 붉은 피망 1 개, 당근 1 개, 초록 고추 5 개, 오이 2 개, 파 6 뿌리 (야채는 숨이 죽으면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파는 많이 넣어주시면 좋아요, 모든 채소는 길게 썰어서 모두 물기를 페이퍼 타올로 완전히 닦아 주세요)

골뱅이에 모든 채소와 소스를 넣고 잘 버무려 줍니다.

(글: 이귀옥 권사, 한인여선교회전국연합회 문화부장, 뉴잉글랜드 북부보스톤교회)

## > English

**Today I would like to share a dish that I enjoy a lot, *Whelk Salad*.**

- 1) Open 2 cans of whelk and discard the liquid.
- 2) Rinse with cold water and pour vinegar over the whelk (this is an important step!)
- 3) Let it sit in the vinegar for about 1 hour.
- 4) Rinse the whelk with cold water one more time and put it in the refrigerator.

To make the sauce:

### **1) Combine:**

- 2 tablespoons of hot pepper paste
- 2 tablespoons of hot pepper flakes
- 10 tablespoons of vinegar
- 1 tablespoons of plum extract
- 1 tablespoons of rice syrup
- 2 tablespoons of sugar
- 2 teaspoons of minced garlic
- 2 teaspoons of ginger extract

### **2) Prepare vegetables by:**

- Shredding ½ head of purple cabbage.

### **2a) Then slice and dice:**

- 1 onion
- 3 red peppers
- 1 red bell pepper
- 1 carrot
- 5 green peppers

-2 cucumbers

-6 scallions

3) Place the vegetables on a paper towel to dry excess moisture.

4) Finally, mix the whelk with the sauce and the vegetables. Serve and enjoy!

(Written: **Kwi Yun**, New England KUMW Network)



**“함께하면 쉽습니다: \$1,000 모금운동”**



**1884 년**, 오하이오 연회 리벤나 지방의 제일연합감리교회의 여선교회 회원이었던 루시디아 볼드윈은 어둠 속에 살던 한국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88 을 지정헌금하였습니다. 가족을 잃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던 볼드윈은 소망을 잃은 한국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여 헌금하였습니다. 성경의 밀가루 반죽에 넣어진 누룩처럼, 한국여성을 향한 볼드윈의 헌신은 커다란 사랑이 되어 한국에 전해졌습니다.

**1885 년**, 한국으로 파송을 받은 감리교 여선교사 매리 스크랜튼은 이 헌금으로 이화학당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절망뿐인 한국이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교육하였으며 현재의 이화여자대학교로 발전하여 여전히 영향력 있는 수많은 여성리더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루시디아 볼드윈과 매리 스크랜튼의 선교열매인 우리 한인여선교회 회원들, 한인여선교회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1993 년**, 시작된 한인여선교회는 지난 23 년간 여선교회원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로 양육해 왔으며 2 세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서도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 여성 목회자, 미국 여선교회 본부 회장 및 이사, 연회 및 지방회 임원 등을 배출해 내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전국지도자훈련, 국외에서는 아시아 전도부인 사역을 실시하며 또 다른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한인여선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기에 소망합니다!**

**2016 년**, 2 년마다 실시되는 **전국지도자훈련**을 통해 한인여선교회 회원과 2 세 여성들은 함께 모여 나누고 배우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전국지도자훈련을 위해서는 매년 6 만불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은 한인여선교회 회원 한 사람이 2 년 동안 \$1,000 불을 헌금해준다면 가능합니다. 평신도 지도자로 훈련 받은 여선교회 회원은, 1884 년도의 우리처럼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전세계 여성과 아동,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는 제 2 의 볼드윈, 매리 스크랜튼이 될 것입니다. 한인여선교회와 함께 우리의 헌신이 커다란 사랑으로 전해지는 선교의 새 역사를 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000 헌금 방법)**

매달 \$45 또는 1 년에 \$500 을 2 년동안 전국연합회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전국연합회는 501C 의 비영리기관으로 가입되어있어서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Check 발행은 NNKUMW, 주소는 NNKUMW 57-38 Cloverdale Blvd. Oakland Gardens, NY 11364

### 후원신청서 다운받기

자세한 문의는 김명래 총무 ([mrkim81@gmail.com](mailto:mrkim81@gmail.com)/ 914-473-7401 )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 김명래 전도사,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총무)

#### \* 후원자 명단:

**2016 년 후원:** 김리자, 임성혜, 김명래,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아콜라교회, 전봉숙, 김정화 , 김효순 , 송은순 , 박나미, 김효순,

장신전, 남가주 연합회, 맨스월드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 > English

#### "Easier if we do it together: \$1,000 fund raising for NNKUMw"

The National Network of the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has held the leadership training every two year since 1993. The last event was held in September in Nashville, Tennessee. The leadership training was made possible by financial support of the Women's Division and donations from KUMW members. Many leaders who received training are currently working as pastors, officers at the jurisdictional and conference level, and Women's Division board of directors. Many young Korean American women also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event.

The NNKUMw is a mission fruit of the UMW. Its dramatic growth has a beautiful story behind the faith in action of one UMW unit. In 1884, Lucidia Baldwin, a member of the Ohio Conference, gave the designated offering of \$88.00 to be used to educate Korean women in Korea. She was having a difficult time after deaths of her husband, daughter and grandson all at the same time when she heard about the plights of Korean women. She sold her husband's



property and gave the offering to the Ohio UMW Conference. With this offering, 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North) was able to send Mary Scranton as its first woman missionary to Korea and started Ewha School for Girls in 1885. She can be compared with the woman in the Bible who made the bread with yeast and shared it with her neighbors. We can say we are offspring's of Mrs. Baldwin's mission offering, so we owe her the debt of mission.



The members of the NNKUMw are learning, sharing, and growing together with the leadership training. We are doing our best to bear another mission fruit by the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and the Bible Women's Program abroad. To be able to achieve our goals, the leadership training plays a vital role.

Since 2007, the NNKUMw had the leadership training event without the support of the UMW National Office. We need \$60,000 for the 2017 national training event. We need your help. If many members of the NNKUMw donate \$1,000 over two years, the training event will be possible.

**It is easier if we try together!**

We can become another Mrs. Baldwin in spreading the good news of Christ to women, children and youth who are still living in the dark. We ask you to write a new chapter of mission history by enabling the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to be the tool to develop future leaders for Christ.

(Ways to donate \$1,000 mission fund)

**2016 \$ 1,000 Fund Campaign supporters:** Lija Kim, Sunghea Rhim, Myungrae Kim Lee, Kum Ran KUMC UMW, Arcola KUMC, Boong Sook Jun, Jungh Hwa Kim, Grace Song, Nami Park. Hyo Soon Kim, Sin Jun Chang, Cal-Pacific Conference KUMW Network, Mansfield KUMW

Monthly donation of \$45 or yearly donation of \$500 for 2 years

NNKUMw is 501c a non-profit organization registered with government. Your donation is tax deductible. Send checks "Payable to NNKUMW, NNKUMw 57-38 Cloverdale Blvd., Oakland Gardens, New York 11364 For more information: e-mail to [mrkim81@gmail.com](mailto:mrkim81@gmail.com) or call 914- 473- 7401

Copyright © 2008 [www.nnkumw.org](http://www.nnkumw.org) National Network of Korean-American United Methodist women All rights reserved.

한인 여선교회 연락처 : 57-38 Cloverdale Blvd., Oakland Gardens, NY 11364 • 전화 : 914-473-7401 •

메일 : [members@nnkumw.org](mailto:members@nnkumw.org)

발행인: 김리자 회장/김명래 총무/한글교정-안영숙/영문교정-Paul Lee/Web Master-김시춘